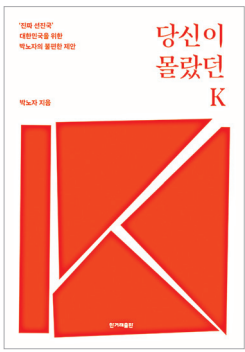


경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진짜 'K'



당신이 몰랐던 K

전세계 넷플릭스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과 '지옥'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 BTS와 블랙핑크 등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이렇듯 'K'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어떤 것을 부를 때 붙여 쓰인다. 그러나 경계인이 바라본 진짜 'K'의 모습은 어떨까.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나 2001년 귀화해 한국인이 된 박노자(블라디미르

**협오·학벌·노동 등 한국사회 주요 문제 조망
근본 원인은 '타자를 향한 존중·소속감 고갈'
"인간·생태계 총체적 생존이 새로운 상식돼야"**

티호노프)가 '당신이 몰랐던 K'를 출간, 경계인의 시선으로 한국이 가진 모순과 부조리를 조명하고 나섰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각 장의 주제로 삼고 문제를 제기한다.

1장 '과거-돌아오는 망령들'에서는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빈곤이 다시금 우리 사회로 돌아오고 있음을 지적한다. 굶주림이나 영양 부족 같은 전통적인 빈곤은 사라졌으나,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 빈곤'이나 타인과 일정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 빈곤'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2장 '위계-높으신분 없는 세상을 위하여'에서는 한국 사회의 엄격한 권위주의를 비판하고, 일종의 신분제로 작동하고 있는 학벌을 꼬집는다. 학력을 부모의 힘으로 얻는 '2세 사회 귀족'들과 현대판 '평민' 자녀들이 걷는 삶의 궤도는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3장 '협오-나는 협오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이제는 일상화돼버린 '협오'가 키워드다.

4장 '노동-일이라는 식민지'에서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식민화하고, 심지어는 삶 자체를 앗아가는 노동 현실을 다



박노자

룬다. 5장 '세계,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하여'에서는 "몸은 아시아에 있지만, 머리는 미국과 유럽에 있다"고 말하며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미국과 유럽을 보편

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을 낳는 사회적 현상을 조명한다.

마지막 6장 '미래-사라져야 할 것들, 와야 할 것들'에서 저자는 한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노자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는 일은 제도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한국을 '불행한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사회구조도 있으나 근본적 원인은 '타자를 향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나와 남을 이어주는 소속감의 고갈'에 있다는 것이다.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나'를 지지하고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타자의 부재가 자연스레 개개인이 고통을 버틸 힘을 빼앗았다는 지적은 현대인들에게 공감이 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회적 상식과 통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능력 유무나 위치를 떠나 만인이 그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이 아닌 인간과 생태계의 총체적 생존이라는 점이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K'가 진짜 선진국으로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한겨레출판. 240쪽. /오지현 기자

세책 나왔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
나심리 상담사 사사다 유미코가 그동안 만나 온 10대들의 고민을 듣고 나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인생 힌트 50가지 담은 책. 인간관계, 생활 태도 등이 개성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실려 있다. 이야기공간. 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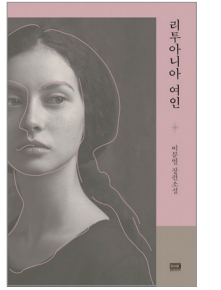
◇직장의 정석=초보 직장인이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 담긴 책이다. 회사 생활을 하며 갖춰야 할 마음가짐, 직장 예절, 업무를 하며 거치게 될 자세와 기본기,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룬다. 미문사. 236쪽.



◇꿈=불안과 권태, 그리고 유머라는 세 가지 재료로 낯설고 견고한 문학 세계를 구축해 온 소설가 정영문의 7편의 단편소설을 엮은 소설집. 1996년부터 26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그의 초기 작품관을 엿볼 수 있다. 민음사. 324쪽.



◇리투아니아 여인=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뮤지컬 감독 김혜련의 삶을 통해 다국적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의 운명, 그리고 한 고독한 예술가의 초상을 밀도 있게 그려냈다. 알에이치코리아. 304쪽.



◇양꼬치의 기쁨=평범한 일상에 들어 닥치는 약동 같은 공포,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이 주는 기묘한 카타르시스로 빛어낸 10가지 이야기.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날카로운 호러적 상상력을 통해 숨겨왔던 욕망을 드러낸다. 퍼플레인. 332쪽.



옛 선비에게 듣는 광주정신



광주정신의 뿌리 놀재 박상

광주시 서구문화원이 광주정신과 광주 다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인물들을 조명하는 책 '광주정신의 뿌리 놀재 박상'을 출간했다.

이번 책 발간은 서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광주정신과 관련된 인물 현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 '진정한 광주인 회재 박광욱', 2020년 '광주의 혼 의병장 김세근'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책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호남 사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서구 서장동 절골마을 출신의 놀재 박상(1474-1530)이다.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하던 조선 중종 시기의 관료였던 그는 사림 운동에 전

2019년 시작된 역사 속 인물 현장사업 일환
조선 호남 사립 중추적 역할 놀재 박상 조망

력한 학자로, 후배였던 퇴계 이황이 그에게 대해 "행동과 인품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했을 정도로 올곧고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의 성정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연산군 후궁의 아버가 횡포를 부리자 그 죄를 추궁하다 자살시킨 사건이 첫 번째, 중종의 첫 부인이자 즉위 7일 만에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를 왕비로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두 번째다.

이 중 두 번째인 '신비복위소' 사건은 단경왕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인데다 반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산군을 폐위시킨 반정 세력에 의해 단경왕후가 폐위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종이 맞이한 새 왕비인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답양부사로 재직하던 그는 중종반정 직후 폐서인 됐던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간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는 다 시금 중종과 대왕대비인 정현왕후의 분노를 사 그는 나주 남평에 소재한 오립역으

로 유배당했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조광조로부터 '강상의 법도를 세웠다'는 말을 듣는 등 후대로부터 목숨을 내걸고 의로움을 표현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그는 정조로부터 "박상의 시는 힘차고 아름다워 우리나라 시 가운데 으뜸이다"는 평을 듣는 정도로 시 쓰기도 능했다. 그가 쓴 1,200여 수의 한시는 문학작품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놀재집'으로도 발간됐는데, 이 놀재집에 실린 작품 중 상당 부분이 광주정신과 맞닿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또한 인상적이다.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과거의 선비 정신과 현대의 5월 정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날 광주정신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광주·전남으로 하여금 한국의 민주인권 역사의 선도자이자 주역 역할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지현 기자

나이듦에 따른 언어와 인지 변화

지스트 최원일 교수 번역서 '노화와 언어~'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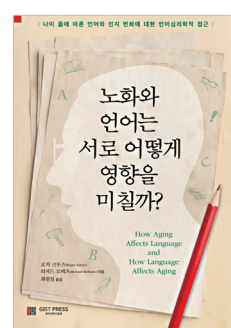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부 최원일 교수가 번역서 '노화와 언어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출간했다.

최 교수는 Memphis 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자 문과대학 부학장으로 언어 심리학을 연구하는 로저 크루즈(Roger Kreuz)가 저자로 참여한 저술서 'Changing Minds'를 번역했다.

이 책은 노화와 언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다양한 관점 중, 특히 인지 언어와 노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언어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밝힌다.

또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연구 결과와 각양각색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언어의 발달과 언어 사용, 언어와 노화의 상호관계에 대해 다뤘다.

최 교수는 "잘 읽고, 잘 쓰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거나, 인간의 언어 정보처리 분야의 지식을 확장하고 싶은 독자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면 한다"고 밝혔다.

역자인 최원일 교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채플힐 캠퍼스에서 인지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지스트 기초교육부 교수로 재직하며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최 교수는 인간이 생각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때 눈과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최근 인간과 기계 그리고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관심의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캐노피 1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 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